

北韓政府의 樹立過程에 관한 研究

— 소비에트화를 중심으로 —

변재현*

A Study on the founding process of the North Korean regime

Jae - Hyun Byun

목 차	
Abstract	V. 사이비연립의 단계
I. 서 언	VI. 단일체제의 구성
II. 동구공산화와 북한소비에트화	VII. 결 언
III. 해방과 소군정의 성립	참고문헌
IV. 순수연립의 단계	

Abstract

This study attends to analyse the organizing process of the North Korean regime. As it is well known, the North Korea is formed by the support of the Soviet Union. The Soviet Union developed the direct involvement in the North Korea right after Korean Liberation from domin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In particular, the Soviet Union sought after the gradual policy of genuine coalition, bogus coalition, and monolithic regime.

This study consists of seven sections ;

Section 1 presents the summary of treatise.

Section 2 explains the communization of the Eastern Europe.

Section 3 writes up the Soviet Military Government and Liberation in the

* 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정치학 전공)

North Korea.

Section 4 contains the stage of the genuine coalition.

Section 5 analyses the phase of bogus coalition.

Section 6 describes the establishment of monolithic regime.

As for conclusion, section 7 is generally aimed at making an analysis of this treatise.

I. 서 언

본 글은 1945년 8월 해방과 동시에 이루어진 소련군의 진주로부터 1949년 9월 북한정권의 수립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김일성정권 탄생에 소련이 지니는 역할을 중심으로해서 고찰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8·15해방은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소열강의 권력정치의 소산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우리 역사에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통치의 사슬은 해방과 동시에 단절되었지만 민족의 주체적 통합력의 미비로 연합국에 의한 주어진 해방으로 인해서 이후 전개되는 한반도 정치구조는 외세의 분할구도가 확대재생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외연적 규제력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은 외세의 개입없는 혁명적 투쟁의 결과로서 이루어 졌다고 스스로를 평가하여 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권수립 과정에서 소련의 지시와 통제를 받았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고찰된다.

소련군은 당시 북한민중들에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지니고 있었던 조만식을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들을 제거하면서 공산단독정권을 첫째, 순수형 연립, 둘째, 사이비 연립의 단계를 거쳐 수립하였다.

II. 동구공산화와 북한소비에트화

제2차대전이 종결된 후 共產主義的 國際路線에 의거하여 동구라파에 대한 공산화가 소련에 의해서 조성됨으로써 동서간에 이데올로기 분쟁이 확대 재생산되었다. 1945년 2월의 알타회담(Yalta Conference)에서 동구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인정받은 소련은¹⁾ 동유럽 및

1) 알타회담의 주의제는 독일의 전후처리문제를 비롯한 유럽의 정치적 및 군사적 문제와 대일전 참전에 관한 소련의 입장정리문제였는데 알타회담의 내용과 전개에 대해서는 Leland M. Goodrich, Korea :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New York : Doubleday and Co., 1949); 정용석, 『미국의 대한정책 : 과거와 미래』(일조각, 1976) 등을 참조.

발칸제국에 파시즘의 해방대신 서구민주주의에 대한 완충지역(buffer zone)으로서 공산화를 진행시켰다.²⁾ 전후 동구의 공산화과정은 직접적인 무력행사를 자제하고 비공산계급을 포함한 연립정권의 형태인 인민민주주의노선(People's democracy)³⁾에 따른 스탈린외교의 일단을 현저히 표출해준 것으로 이는 붉은 군대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서방민주국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직선적인 소비에트화 정책으로 예상될 수 있는 민족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⁴⁾ 蘇聯은 共產主義者들로만 구성된 일당독재정권 수립을 기도하지 않고 일시적이고 잠정적이지만 聯立政府形態의 과도적 단계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동구의 공산화과정에서의 경험은 비록 국내의 환경과 역사, 문화적인 차이점으로 인해서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차별성은 발견될 수 있지만⁵⁾ 북한의 공산화과정에도 적용되었다.

북한공산주의 政權은 제2차대전후 蘇聯의 팽창주의적 정책의 일환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인민정권으로서 몽고와 동구공산화의 경험에서 얻은 공식을 북한상황에 맞게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였다⁶⁾

Ⅲ. 해방과 소군정의 성립

북한은 항일빨치산 투쟁을 통해 자주적으로 정권을 쟁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⁷⁾ 제2차 세계대전후 북한지역은 아시아에서 스탈린주의 모델을 적용하여 소비에트화 3단계를 거친 유일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⁸⁾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된지 이틀후인 8월8일 자정을 기해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하여 기습적으로 만주의 관동군을 습격하고 치스차코프(Ivan M · Chistiakov)대장이 지휘했던 제25군사령관의 붉은 군대는 평양에 점령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8月末까지 북한전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2) 동구의 공산정권 수립과정에 대해서는 전인영, 「동구 및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비교 : 공산화과정을 중심으로」, 고현욱외,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 1945~1948』(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1), pp.251-280 참조.

3) 인민민주주의는 진정한 공산주의가 도래하기까지의 과도기적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

4) 양호민, 「북한의 소비에트화 : 그 초기의식」, 공산권연구실(편), 『북한공산화과정연구』(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p.9.

5) 동구 및 북한의 공산화과정의 특징에 대해서는 전인영, 앞의 글, pp.292-297 참조.

6) 김갑철, 「북한의 '인민민주' 정권수립과정」, 김갑철외, 『북한학개론 : 북한사회주의의 현재와 미래』(문우사, 1990), p.32.

7) 이정수, 「북한정권수립과정」, 통일연수원, 『북한이해』(통일연수원, 1993), p.40.

8) Seton-Waston의 3단계 ① genuine coalition ② bogus coalition ③ menolithic regime H. Seton-Wasto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New York : Prager, 1961) 참조.

당시 소련군이 군사적으로 진공상태나 다름없는 한반도의 남단까지 진출하지 않고 38선에서 진격을 멈춘것은 다음 두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⁹⁾ 첫째, 스탈린(Stalin)은 美國과의 정면대결을 피도록 피하려 했고¹⁰⁾ 둘째, 한반도의 분할점령을 빌미로 일본의 분할점령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의 일본에 대한 분할점령기도는 美國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다. 1945년 8월 25일 평양에 입성한 소련군은 즉시 점령군사령부를 설치하고 미국과의 협약에 의거 38도 이북지역에 대한 일본군 무장해제를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크레믈린이 작성한 소비에트화 계획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전후 蘇聯軍 점령하의 東歐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의 집권은 대개 다음의 세가지 통로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이루어졌다. 첫째, 민족주의세력의 성공적인 게릴라 운동, 둘째, 대중의 지지와 의회진출을 통한 권력의 장악, 셋째, 蘇聯軍에 의한 소비에트정권의 창출이 그 통로이다. 이들 가운데 세번째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baggage-train government' 즉 '소비에트군대의 정치보따리의 하나로서 다른나라로 운반된 정치형태' 또는 '소비에트군대가 軍用行廊에 넣어 輕重車에 실어 놓 체제'로 불리었다.¹¹⁾ 이러한 동구의 모델을 북한에 적용해 보면, 세번째 카테고리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은 치스차코프(Ivan M. Chistiakov) 대장 휘하의 제25軍 兵力이었다. 소련은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김일성을 중심으로한 「빨치산」과 소련내의 한국인2세를 대동하고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위한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표를 갖고 왔다.¹³⁾ 소련의 沿海州지방에는 滿洲다음으로 한국인 망명자들이 많았고 韓人共產主義者들은 국내지하세력들과 계속 연계를 맺어왔기 때문이다.¹⁴⁾

또한 소련은 미국과는 달리 軍政을 통한 직접통치방식을 취하지 않고 간접통치 방식을 취하였다. 즉 표면적으로는 北韓人の 統治體를 인정해 주면서도 소련 점령군사령부 내의 정치사령부가 배후에서 모든 정치공작을 담당함으로써 소련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정치를 이끌어 갔다. 이 정치사령부는 로메넨코소장이 이끄는 43인조가 지휘하고 있었으며 이 기관에는 소련국적 또는 소련共産黨 당적을 갖고 있는 한인들이 중심이 된 약 3백명의 훈련된 政

9) Ibid., p.65.

10) 스탈린은 蘇聯軍을 출동시켜 조선을 지원함으로써 미군과 맞붙는다면 전쟁이 세계로 번져 제3차 대전이 일으킬지 모른다고 우려했으며 두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세계의 역학구조를 파괴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대신 中國이 출병하기를 바랐다. 洪學智, 앞의 글, pp.42-43.

11) R.V. Burks, "Eastern Europe" in C.E. Black and T.P. Thornton(eds), *Communism and Revolution*(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pp.86-93.

金學俊, 『韓國問題와 國際政治』(박영사, 1976), p.149에서 재인용.

12) 梁好民,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2(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제1장.

13) Cho Soo-Sung, *Korea in World Politics : 1940-1950*(Berkel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p.880.

14) Ibid., p.82.

治·행정요원들이 배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¹⁵⁾

소련점령군은 1945년 8월 26일 발표한 첫 포고문에서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이와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꾸준히 노력 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다...조선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조선인민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 하는 자로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군사통치의 배경을 분명히 하고 있다.

IV. 순수연립의 단계

치스차코프는 점령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25군사하의 민정업무담당 로마넨코 소장파 군사위원회 레베데프(Lebedev)소장의 보좌를 받으면서 북한에서의 소련의 점령정책을 크게 3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전개하게 되었다.

첫째는 1945년 8월부터 1946년 1월까지 순수한 연합(genuine coalition)의 단계이고 두 번째는 1946년 2월부터 1948년 초를 사이비연립(bogus coalition)의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1948년 2월부터 1949년 9월 정권수립될 때까지 단일체제(monolithic regime)의 수립시기라고 할 수 있다.

순수한 협력단계로서의 첫시기에서 소련의 정책은 민족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간의 협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일제의 갑작스러운 항복으로 인해서 북한지역에 정치적 공백상태가 초래되자 이러한 진공상황에 편승해서 정치적 위상을 고양시킬려는 세력이 각 지방에서 속출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방직후인 8월 17일 조만식의 주도로 결성된 평안남도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평남건준은 지방정권이나 정당도 아닌 과도적이고 순 민간적인 애국단체에 불과하였지만¹⁶⁾ 북한에서 상당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8월 25일 평양에 입성한 소련군은 각도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일제로부터 접수한 행정권을 인계받아 행정의 공백을 메우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중앙정부가 수립될때까지 과도기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할 지방기관의 조직화가 필요했다¹⁷⁾고 하겠다.

15) 김학준, 앞의 책.

16) 조만식등 민족지도자들은 평남 주지사 후루가와(古川)의 사전교섭에 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준비활동을 하여 평남건준을 조직한 것인데 준비모임에서 평남건준을 성격을 지방정권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며, 중앙정권이 확립되고 중앙정부가 수립되는 즉시로 모든 권리와 사무를 무조건으로 이양하고 또 이양하기 위한 과도적이고 순민간적인 애국단체에 불과하다고 규정하였다. 구체적 것은 오영진, 『소군정하의 북한 - 하나의 증언』(부산 : 국민사상지도원, 1952), pp.33-34.

17) 이정수, 앞의 글, p.41.

그리하여 소련군은 8월 27일 로마네펜소장이 주관하여 조만식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진영간 부들과 현준력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공산당 간부들을 각 16명씩 선출하여 '평남인민정치위원회'를 구성케하였다.¹⁸⁾

중앙정부가 있을 수 없었던 북한에서 지방정권의 역할을 한 것은 각급인민(정치)위원회였다. 소련군의 진주와 더불어 그 지령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은 각도에서 인민위원회를 수립했다. 이어 시·군·면의 각급인민위원회 역시 북한인민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자치행정기구가 아니라 소련군사령부의 의사대로 조직된 기구였다.¹⁹⁾

형식적으로는 평남건준은 "좌우연합체"²⁰⁾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민족주의적 세력이 강세를 띠고 있던²¹⁾ 평남의 경우는 민족주의 세력을 억제하고 공산주의 세력의 동등한 참여를 요구하여 실제적으로는 우익의 영향력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 결과적으로 좌익우세를 야기할 수 있는 계기²²⁾를 조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소비에트化 제 1단계²³⁾라고 고찰된다.

V. 사이비연립의 단계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소련군 진주와 더불어 각도인민위원회와 지방인민위원회가 급속도로 조직되자 소련군사령부는 10월 8일 평양에서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대표자연속회의'를 개최케 하여 10월 28일 '북조선 5도행정국'(위원장 : 조만식)을 정식발족하기에 이르렀다.

5도행정국은 산업, 교통, 재정, 농림산업, 체신, 교육, 보건, 사업, 보안 등 10국을 두었는데 이것으로 북한 5도의 행정적 중앙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장은 민족주의자나

18) 북한연구소(편), 『북한총람』(북한연구소, 1983), pp.150-151.

19) 양호민, 「전체주의 1인독재체제의 확립」, 이상우외, 『북한40년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특성과 변천과정』(울유문화사, 1989), p.36.

여기서 공산당식의 인민위원회로 하지 않고 인민정치위원회로 한것은 건준측이 주장한 정치위원회 일과 절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재덕, 『공산주의이론과 현실비판』제3권, p.172.

20) 한용원, 『통일을 위한 북한연구』(박영사, 1989), p.117.

21) 당시 평남건준의 조직 구성원 중 공산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이주연(총무부장), 김광진(무임소위원), 한재덕(선전부장) 뿐으로 주로 기독교인과 민족주의자가 중심이 된 조직이었다. 평남건준의 진용에 대해서는 김병연, 『평양지』(고당전·평양지간행회, 1964), p.47 참조. 소련군 진주 전 평남건을 포함한 북한내의 자생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김용복, 『해방직후 북한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김남식의, 『해방전후사의 인식』5(한길사, 1989), pp.202-206 참조.

22) 김갑철, 앞의 글, p.34.

건준측과 공산측위원 각각 16명씩의 합작으로 성립된 위원회명단은 오영진, 『소군정하의 북한 : 하나의 증언』(부산 : 국민사상지도원, 1952), pp.116-117 참조.

23) 한용원, 앞의 책, p.117.

연안파 및 국내파가 장악해도 실권이 있는 모든 부국장직은 소련파가 장악하여²⁴⁾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확대강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五道行政局이 北韓의 “胎兒的 政府”였다는 사실이다. 學者들 중에는 또한 五道行政局의 창설이 “북한의 단독정권수립을위한 第一歩”였다고 평가했다.²⁵⁾ 이와 때를 같이하여 소련점령사령부는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적 혁명정당을 발족시켰다. 10월 10일 조선공산당 西北五道責任者熱誠者 대회를 열고는 10월 13일 조선공산당 北朝鮮 分局을 세웠다. 드디어 소련점령사령부는 10월 14일 김일성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를 열고 만33세 젊은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등장시켰다.²⁶⁾

그러나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조만식을 비롯한 민족주의 진영은 광범위한 대중의 신망을 토대로 해서 11월 3일 광주학생사건기념일을 기화로 해서 ‘조선민주당’을 창설하여 북한 전역의 도·군·면에 이르기까지 급속히 팽창시켜 나가는 등 독자적인 정치세력의 형성도 도모하였다. 이에 소련군사령부는 민주당에 공산당원인 崔庸健, 金在民(金策의 가명)을 침투시켜서 최를 부위원장, 김을 黨書記長이라는 주요직책에 앉히는데 성공하였다.²⁷⁾ 공산주의 세력은 민주당의 지방당무의 회의장을 습격하여 폭행을 가하고 죄명을 날조하여 민주당 지방간부를 구금, 투옥하는 등 갖은 방해공작을 자행하여²⁸⁾ 민주당의 정당활동을 적극적으로 탄압하였다.²⁹⁾ 당시 북한사회에서 폭넓은 지지기반을 지니고 있던 고당조만식은 모스크바선언(1945. 12. 29)에 의한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문제로 인한 소련당국과의 긴장상태로 연금상황에 빠져 해방정국의 정치과정에서 도태되는 비운을 맞이하고 말았다.³⁰⁾

그후 1945년 12월 조만식 선생이 신탁통치에 반대하자 반동으로 몰려 연금되고 1946년 2월 8일 오늘의 북한공산정권의 모체인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가 조직되었는데 이것은 북한에서 스탈린주의 권력체계가 확정되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남북분단의 시작이었다. 소련

24) 위의 책, p.117~118.

당시 북한의 정치세력은 크게 네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朴憲永 중심의 국내공산주의자 집단, 두번째는 연안파로 알려진 中國으로부터 귀환한 金料奉 중심의 세력, 세번째는 소련군과 같이 입국한 金日成 중심의 소련파, 네번째는 曹晩植 중심의 우의적인 민족주의 세력 등이 있다.

25) R. A. Scalapino and Lee Chong-Sik, *Communism in Korea. Part I : The Movement*(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1972), pp.332-333.

26) 金學俊, 앞의 책, p.30.

27) 김갑철, 『북한공산주의실상』(한국승공연구원, 1979), p.82.

28) 위의 책, p.82.

29) 이후 민주당은 1946년 2월 5일 「북조선민주당열성자대회」를 개최하여 당을 전면적으로 조직개편하여 강양욱을 임시당수로 하고 2월 24일에는 최용건이 완전당을 장악하여 애초 민족주의 세력의 집결체로써의 의미는 상실된 채 좌익정당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에 원래 민주당의 핵심적인 민족주의 세력은 1946년 4월 중앙당 본부를 서울로 옮겨 명맥을 유지하였다.

30) 이정식(저), 김성환(역), 『조선노동당약사』(이론과 실천, 1986), pp.108-109.

은 이와 같이 북한에 들어온지 불과 수개월만에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위한 기틀을 잡았으며 이 모든 일이 질서 정연한 중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이미 美·蘇間에 주로 東歐問題를 둘러싸고 不和가 높아가고 있었고 이러한 여파는 한반도 문제에도 미쳐 美·蘇의 협력을 전제로한 모스크바 협정의 실현가능성은 비관적이었다. 신탁통치안이 국내에 알려진 1945년 12월 28일 이후 한반도에는 전국적으로 反託運動이 일어났고 처음에는 반탁 운동에 가담했던 공산세력이 소련의 지령에 따라 돌변 贊託으로 태도를 바꾸자 南韓의 政局은 반탁과 찬탁의 양극적 현상속에 좌·우익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되었다.

이처럼 모스크바협정에 대한 좌·우 대립으로 혼란한 가운데에 美·蘇의 대표회의가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에서 열렸고 여기에서의 합의에 따라 1946년 3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제1차 美·蘇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이 제1차 美·蘇共同委는 양국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그쳤지 문제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었다.³¹⁾ 소련은 처음부터 모스크바협정에서 예견되고 있는 韓國民主臨時政府의 수립에서 右翼을 제거하려고 하였고 美國은 좌익세력의 한국지배는 방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美·蘇共委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한 상황에서 北韓은 김일성 중심의 單一지배 체제가 더욱 굳어졌다.

VI. 단일체제의 구성

이처럼 소련당국은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탄압을 통해 기반을 확고히 한후 전국적인 정치 구조를 수립하기 위해 북조선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5도행정국 및 인민정치위원회 등의 대표자 확대회의를 1946년 2월 8일 평양에서 개최하였다.³²⁾ 여기서 김일성은 기초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일체의 정치·경제 및 문화생활의 향상과 민주주의적 지방행정기관의 지도사업을 개선할 목적으로 북한의 중앙행정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이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³³⁾

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현 북한공산정권의 모체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1945년 12월 17일에 개최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제3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민주

31) 이때 소련의 首席大長이 스티코프(Terentii Shtykov) 대장을 美國측의 하지 중장에서 韓半島가 차지 對蘇 공격기지가 안되며 반드시 소련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솔직히 언급하고 있다. Donalds. Zagoria, *Soviet Policy in East Asia*(New Haven and London, 1982), p.175 참조.

32) 이정식(저), 김성환(역), 앞의 책, pp.108-109.

33) 동일 발표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창건에 대한 북조선 각도 및 각군인민위원회 대표들과 반일 민주주의적 당 및 각 사회단체들의회의 결정서’ 전문은 김준엽의(편), 『북한연구자료집』 제1집(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68), pp.46-47.

주의 정당과 사회단체”와 연합하여 “강력한 민주기지”를 건설하자는 노선에 의해 결성된 것이라고 고찰된다. 2월 9일에 발표된 임시인민위원회는 형식적으로 볼때 공산세력과 민주당 세력 및 무소속을 연합해서 구성했지만 사실은 “공산당독판”³⁴⁾적 의미를 띠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순수공산세력에 의한 단일정권수립에 이르는 중간단계인 사이비연립단계에서 표면적으로는 민족주의세력을 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구색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어진다. 이러한 경우는 1946년 8월 북조선 공산당이 연안파가 조직한 신민당을 흡수합당하여 북조선 노동당을 결성하는 개편과정에서 명약관화하게 노정되고 있다. 즉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공산당·신민당 양당의 합당대회의 결과로 북조선노동당의 결성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성된 최고지도기관은 소련당국의 영향으로 사이비연립下에서 허가이, 박일우 같은 소련파와 연안파를 대폭기용하고 북한의 공산화를 조종해 나갔다.³⁵⁾

북조선노동당 결성을 통해서 공산당 일당체제를 완성한 후 1948년 2월 소련의 도움으로 김일성은 조선인민군을 창설함으로써 단일체제의 기반을 완전구축하기에 이르렀다.³⁶⁾ 우선 1946년 2월 8일 북한의 단독정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中央施政機官인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가 구성되었고 8월 30일에는 朝鮮共產黨 北朝鮮 분국과 新民黨이 合黨하여 北朝鮮 勞動黨이 결성되었다. 美·蘇共同委가 결렬된 상황에서 北韓에서는 이처럼 單獨政權을 향한 정치발전이 이루어지자 이에 초조한 미군정은 남한에서도 한국인에 의한 대표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는 1946년 5월 25일 중도좌파의 김규식과 중도우파의 여운형 사이에 左·右合作運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左右合作運動은 共產黨과 李承晚, 金九 등 우익세력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中間세력을 통합하는데 불과하여 실패로 끝나 버렸다.

한편 북한에서는 1946년 11월~1947년 2월까지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의선거가 실시되었고 2월 21일 北朝鮮人民會議가 소집되어 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에서 임시라는 용어를 없앤 正式의 北朝鮮人民委員會를 선출함으로써 사실상의 단독정권이 수립되었다.

VII. 결 언

해방직후 김일성은 소련군대와 함께 원산항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는 1942년 7월에 소련에서 창설된 소련극동군 휘하의 비밀정찰부대인 88특별여단에서 활약한

34) 공보부, 『현대사와 공산주의』(공보부, 1968), p.85.

35) U.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 of Takeover* (Washington D.C.: GPO, 1961), pp.100-105.

36) 북한인민군의 창설에 대한 소련의 역할에 대해서는 K. 칼리노프, 「소련은 어떻게 북한인민군을 건설했는가」, 『북한』, 1988년 6월호, pp.50-65를 참조.

경험을 기초로 소련 점령군의 강력한 지지와 후원을 받게된다. 소련군 사령부는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를 열고 33세의 젊은이를 소위 민족의 영웅으로 일반북한인민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한국공산주의 운동의 혁명적 전통을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에서부터 수립하기 위한 상징조작이 광범위하게 조성되었다.

김일성은 북한정권 수립이 항일독립운동의 맥을 잇는 한국사적 정통성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련군의 자국이익을 위한 물리적 지원 및 후원과 깊이 연계되어 있던 비자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소련의 물리력을 바탕으로한 북한정권의 독립과정에서 보는 비정통성은 김일성의 유일독재권력을 확보하는데 비민주적인 권력장치를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 고 문 헌

- 1) 공보부, 『현대사와 공산주의』(공보부, 1968)
- 2) 김갑철, 「북한의 인민민주 정권수립과정」, 김갑철외, 『북한학개론 : 북한사회주의 현재와 미래』(문우사, 1990)
- 3) , 『북한공산주의실상』(한국승공연구원, 1979)
- 4) 김병연, 『평양지』(고당전·평양지간행회, 1964), p.47 참조. 소련군 진주전 평남전을 포함한 북한내의 자생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김용복, 「해방직후 북한인민위원회 조직과 활동」, 김남식의, 『해방전후사의 인식』5(한길사, 1989)
- 5) 김준엽외(편), 『북한연구자료집』 제1집(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68)
- 6) 북한연구소(편), 『북한총람』(북한연구소, 1983)
- 7) 양호민, 「북한의 소비에트화 : 그 초기의식」, 공산권연구실(편), 『북한공산화과정연구』(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 8) , 「전체주의 1인독재체제의 확립」, 이상우외, 『북한40년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특성과 변천과정』(울유문화사, 1989), p.36.
- 9) ,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2(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67)
- 10) 오영진, 『소군정하의 북한 - 하나의 증언』(부산 : 국민사상지도원, 1952)
- 11) 이정수, 「북한정권수립과정」, 통일연수원, 『북한이해』(통일연수원, 1993)
- 12) 이정식(저), 김성환(역), 『조선노동당약사』(이론과 실천, 1986)
- 13) 전인영, 「동구 및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비교 : 공산화과정을 중심으로」, 고현욱외,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 1945~1948』(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1)
- 14) 한용원, 『통일을 위한 북한연구』(박영사, 1989), p.117.
- 15) 한재덕, 『공산주의이론과 현실비판』제3권, p.172.
- 16) 홍학지,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고려원, 1992)
- 17) Cho Soo-Sung, *Korea in World Politics : 1940-1950*(Berkel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 18) Donalds. Zagoria, *Soviet Policy in East Asia*(New Haven and London, 1982)
- 19) H. Seton-Waston, *The East Eropean Revolution*(New York : Prager, 1961)

北韓政權의 樹立過程에 관한 研究

- 20) K. 칼리노프, 「소련은 어떻게 북한인민군을 건설했는가」, 『북한』, 1988년 6월호
- 21) Leland M. Goodrich, Korea :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 Doubleday and Co., 1949); 정용석, 『미국의 대한정책 : 과거와 미래』 (일조각, 1976)
- 22) R. A. Scalapino and Lee Chong-Sik, *Communism in Korea. Part I : The Movement*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1972)
- 23) R.V. Burks, "Eastern Europe" in C.E. Black and T.P. Thornton (eds), *Communism and Revolution*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 24) U. 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 of Takeover* (Washington D. C. : GPO, 1961)
